

“남북 화해·협력 새시대 열 수 있도록 앞장”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전남 평화회의’
文 전 대통령 “국익 앞세우는 균형외교 필요”
윤지사 “핵 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 만들어야”

전남도는 지난 20일 호태현대 바이라 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전남 평화회의’를 열어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열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평화, 가야 할 그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평화회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김영록 전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희중 대주교, 박지원·이개호·신정훈·김원익·권향엽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영록 지사의 개회사, 김부겸 전 총리와 김희중 대주교의 환영사, 브래드 서먼 미 하원의원의 영상메시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조연설, 2개 세션의 토론회로 진행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평화의 안

전핀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절실한 과제는 없다”며 “편중의 교를 탈피하고 국익을 앞세우는 균형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더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록 지사는 개회사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평화의 울타리가 사라지고 다시 냉전 시대로 되돌아가 남북관계가 너무 안타깝다”며 “다 함께 잘살자는 대동정신과, 상생과 공존, 연대와 협력의 김대중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향해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우리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가치이자 의무”라며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지난 20일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가운데)과 김영록 전남지사(왼쪽)와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 참석했다.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 대선과 한반도 질서 변화”를 주제로 한 첫 번째 토론회는 정현백 포럼사의재 공동대표(전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박지원·정동영·김준형 국회의

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두 번째 토론회는 ‘달라진 세계,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주제로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주재로 임동원 한반

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전 통일부 장관), 외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참여해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토론회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와 현 정부의 외교전략 부

재 등을 언급하며 국익 중심 평화 협상과 전략의 필요성을 집중 부각했다.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통일 정책이 아니라 교류와 협력, 평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남과 북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남북 대화의 첫 단추는 한미 군사훈련의 유예나 축소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민주정부 4기 출범으로 2005년 9·19, 2018년 9·19 두 기동을 되살려야 하고 부채살 외교, 결기외교를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평화회의에 참석한 전남지역 사회·여성·청년단체 등은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위해 제시된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다. 9·19평양공동선언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선언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 경제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6주년 평화회의는 전남도·광주시·경기도·노무현재단·포럼사의재·한반도 평화포럼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공동사업위원회가 주관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의 새로운 실험 ‘대자보 도시’ 함께 연다

市, 광주교통문화연수원과 현장대화...동행 전략 논의
광주시와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광주의 새로운 실험이 될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만들기에 함께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0일 북구 어린이교통공원에서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직원들과 현장대화를 진행하고 ‘대자보 도시’ 전환을 위한 두 기관 간 동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대화에는 강기정 시장과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김병수 원장·직원 15

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 등 참석자들은 교통 안전과 대자보 도시 전환을 위한 연수원의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도시 광주 구현을 위한 시민 홍보 방안 등도 논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교통 안전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어린이 교육은 물론 모범이 돼야 할 어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세심히 챙겨달

라”며 “이러한 노력이 모여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 광주시와 교통문화연수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시장은 현장대화에 앞서 올해 새 단장한 어린이교통공원의 이륜차·킥보드 안전체험 시설 등을 둘러보고 교육보완 사항 등을 꼼꼼히 챙겼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은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전 연령대 생애주기형 교통 안전 교육을 통해 선진 교통 문화, 안전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박선경 기자

광주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정
광주시는 22일 “최근 늘고 있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 건물의 체계적 관리와 갈등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집합 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을 받는 공동 주택을 제외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건물 1개 동에 소유주가 여럿인 건물이다. 이번 표준관리규약은 광주시 소재 집합 건물에 적용한다. 각 건축물의 사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동형 공동 주택, 단지형 공동 주택, 상가 등 6

개 유형으로 나눴다. 이번 표준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집합 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용역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관리단 집행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견권 완화 등이다. /박선경 기자

장세일, ‘합창단 1천만원 기부’ 허위사실 공표 고발

변호인 “낙선 목적 조직적 공모행위 의심”
더불어민주당 장세일(사진) 영광군수 후보는 22일 “최근 영광 관내 합창단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기부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의 변호를 맡은 김경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장 후보의 합창

단 1천만원 기부행위 (고발)진정 건은 단 한 건의 내용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조작 수준의 허위 사실로 죄질이 매우 중하며 유포 경위를 살펴볼 때 낙선 목적으로 행해진 매우 조직적인 공모 행위까지 의심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검찰에 기부행위

조사를 의뢰한 진정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에서 사과하면 모 든 것을 용서하겠다는 뜻을 장 후보 측에서 밝혔지만, 유포 행위는 계속됐고 허위 진정내용이 다른 언론에도 제보돼 계속 유포돼 유감스럽지만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장은영 전남도의원 의원직 사퇴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친동생 “재선거 승리 위해”
더불어민주당 장은영 전남도의원(비례)이 22일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장 의원은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장세일 후보의 친동생이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광군수 재

선거 과정에서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이 생산되고 도를 넘어 재선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는 장세일 후보의 승리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중요한 선거



라며 “저의 사퇴가 장세일 후보의 진정성을 믿고 영광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장세일 후보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이며, 민주당의 승리가 지역민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장 후보의 승리를 위해 도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재정 기자

